

# 정의당은 진성 당원 수가 엄청 줄어들었네

○ ○

작년 9월 당직선거와 이번 당직선거를 비교해보면  
26,578명에서 23,317명으로  
6개월 만에 무려 3,200여 명이나 줄어들었음

작년 박원순 조문 거부 때는 주로 정의당 우파 성향의 당원이 탈당했는데  
올해 김종철과 류호정 사건 때는 주로 정의당 좌파 성향의 당원이 탈당한 것 같음

이번 당직선거에서 부대표 선거 결과가  
정의당 우파의 박창진이 1위,  
공감연대의 설혜영이 2위,  
인천연합 성향의 이상범이 3위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청년 당원도 2,800명 밖에 안 되어서  
진보당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인데  
이걸 보니 한국도 일본처럼 진보 정당의 노령화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음

그나저나 정의당 우파인 박창진이 1위인 것을 보면  
이제 정의당도 무너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

여영국 대표가 부디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

최근의 당원 투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했음

미래당  
알 수 없음

기본소득당  
619명

여성의 당  
1,140명

노동당  
2,219명

녹색당  
5,319명

정의당  
23,317명

진보당  
30,722명